

“나누면 내면의 아름다움 커져”...

원경 스님 (심곡암 주지, 前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 1983년 순천 송광사에서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경 스님은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학 8회를 졸업했으며 1991년 미국LA 송광사 분원 교려사 주지를 역임했다. 서울 북한산 형제봉 아래 심곡암 주지로 산사음악회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 왔다. 조계종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스님은 한국문인협회 시인 회원으로 시집 <그대, 꽃처럼>을 펴냈으며 선(禪)문화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산사 음악회의 최초 개창자로서 30여 회의 산사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한 끼 공양을 위해 이 곳 탑골공원에서 길게 줄서 있는 무의탁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4월 1일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따뜻한 밥냄새가 퍼져 나왔다. 문닫을 위기에 처했던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연 것이다.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는 22년 동안 운영해온 보리 스님이 연세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지며 폐쇄위기에 처해있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원각사가 있던 탑골공원은 도심 한복판 중생구제의 자비보시행과 포교가 진행되어 온 곳이었지만 그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불교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던 순간,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나섰다.

“한 심곡암 보살님이 5년간 무료급식을 해오셨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그동안 문화포교에 매진해 왔으니 복지포교도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은 저에게 원력을 세우게 했지요. 100여 미터 길게 줄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딱해 보이던지... 그 이후 밥주는 일을 중단하면 안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월 13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한켠에 자리한 무료급식 사무실에서 스님은 밝게 웃으며 길손들을 맞이했다. 북한산 자락의 심곡암에 주석하는 스님은 무료급식의 임무를 건네 받은 이후 아예 이곳에 자리를 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이 진행하는 무료급식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로 도움이 없다면 포박 하루를 굶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달에 50만원이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형편이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최저생활비라도 받는 분들은 형편이 나은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구제가 안되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오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으며 눈시울을 적셨다.

스님은 “소외받은 어르신들은 물질적인 빈곤과 늙음으로 인한 한계와 함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다”며 “불제자로서 급식은 단순한 밥이 아닌 이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원력 하에 기존 탑골공원무료급식소 ‘원각사’는 ‘원각복지회’로 이름을 바꿔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를 넘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겠다는 의지다. 스님은 이런 활동기반에 심곡암 신도들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22년간 활동해 온 보리 스님이 건강악화로 그만두시게 되면서, 사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급식복사는 팀제로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진행돼 30개 팀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동안 봉사를 하며 고령으로 활동이 힘든 분들이 차체에 함께 그만두신 것이지요. 이 빈틈을 신도들이 메워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심곡암 신도들은 심곡암에서 탕화를 이운해와 급식소를 장엄하고, 낡고 낙후된 시설을 자발적으로 나서 고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여년이 넘도록 묵묵히 자원봉사를 해온 원각사 봉사자들과 심곡암 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비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원경 스님은 “하루 한 끼의 무료급식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현실이므로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탑골공원은 거대한 노인타운과 같다”며 “이 곳 어르신들은 여러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며 “이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단편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무료급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족이다. 무료급식소 운영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동안에는 보리 스님이 탁발과 기도 등을 통해 운영해 왔지만 원경 스님은 2013년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의 경험을 살려 CMS후원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꾸준히

수행의 길, 불교와의 인연

이처럼 대아적, 무아적인 삶을 말하는 스님은 어려서부터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 스님 스스로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타고났다’이다. 가수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이 무심코 지나칠 일들에도 스님은 항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철이 들 무렵부터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스님은 ‘세상에 대해 투쟁의 연속이구나, 이런 투쟁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다. 결국 스님은 부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19세의 나이에 송광사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사춘기 때 우연히 찾은 장흥 부용암에서 금강경과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며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은사 스님을 만나 출가의 길을 걷게 됐지요. ‘감옥에 갇힌자는 나를 날이 있지만, 가족에 갇힌 자는 나날날이 없구나’는 말이 있습니다. 출가자는 자유롭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모든 이를 평등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출가생활 중에 고민과 갈등도 많지만 평등함을 지니는데는 출가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가 후에도 스님의 풍부한 감수성은 출가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문학, 음악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출가생활 틈틈이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사찰에서 심하게 일어날 때면 시를 쓰고, 또 가슴이 너무나 답답할 때면 노래도 한국 부르며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법을 닦았다. 이후 스님의 문화적 조예는 예술인들과의 인연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됐다.

“국악인 김성녀 씨, 양하영 씨 등과의 친분을 쌓고 음악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회심곡 등을 공부해 마쳤어요. 어려서 지역 노래잔치 등에서 신동 소리를 주변에서 가수가 되리라 생각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속적인 인연보다 출세간적인 인연이 컸습니다. 하지만 출가와 더불어 예술적인 면이 나오더군요.”

1991년 미국 LA 송광사 분원 교려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1998년 주지로 있던 서울 북한산 심곡암에서 그 재주를 꽃피운다. 산사음악회와 생소하던 시절 불심, 자연, 예술이 하나가 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산사음악회는 문화와 종교,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님은 산사음악회를 주도하고 개창하다시피 했다. 이후 심곡암 산사음악회는 시대의 흐름에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장르가 됐다. 심곡암 산사음악회는 대형스타급 출연진 만이 음악회를 빛내는 것이 아니다. 심곡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분위기, 지역에 슬인들이 함께 어울린다.

“이미 현대사회는 복지와 문화가 융합된 통섭의 시대입니다. 불교 안의 시와 음악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찰의 고유 정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스님은 “소통과 열림의 시대”라며 “사찰은 너무 닫힌 공간에서 세상으로 부터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었다.

문화와 복지가 융합된 통섭의 포교

1998년 북한산 심곡암서 문화포교 첫 발

자연과 예술 하나된 산사음악회 기획 호응

지역민과 문화예술인 소통하는 중추 역할

운영중단된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재개

복지재단 이사 경험살려 CMS 후원 전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온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복지분야에 눈을떴다. 스님은 불교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성 교육을 도입했다. 직할교구를 비롯한 전국사찰의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스님은 2013년 흥천장애인복지관 관광을 맡아 지역복지활동에도 나섰다. 스님은 소외청소년과 직접적응캠프 등으로 소외청소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난치병 환자 지원에도 나섰다.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소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대아적 무아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시’며 ‘나눔’입니다. ‘나눔’으로 인해 자기 안의 아름다움이 커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지요.”

스님은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따르며 인자하게 웃었다.



문의처 : 02)365-7747
청정행 두손모임

특별함

- ①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상품 가격)
- ②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③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 여행

www.mahayeon.com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달라 5일
실속상품 99만원, 품격상품 11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49만원, 품격상품 179만원

북경/백두산 5일 김해공항, 인천공항 출발 129만원

행복한 나라 부탄 & 네팔 8일

히말라야에 감춰진 꿈의 낙원

베를을 찾아 떠나는 티벳 8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1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109만원

관음도량 상해/보타.낙가산 5일 109만원

보현도량 성도/낙산대불/아미산 5일 109만원

문수도량 북경/운강석굴/오대산 5일 129만원

※ 마하연 투어는 추가경비가 없습니다.